

<p>「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p>	<h1>주간 북한경제 동향</h1> <h2>Weekly DPRK Business Review</h2>	<p>2008년 10월 6일(월) 통권1호(제1권 제10호)</p>
<p>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p>	<p>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p>	<p>전화 02-782-2677 팩스 02-3452-2312 이메일 master@dprkinvest.org</p>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논평** 이 논평은 매월 격주를 기본으로 남북의 상황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을 게재할 것입니다. ■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긍정적 시그널이 필요할 때”

경제는 ‘시그널’에 대단히 민감하다. 한때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웠던 그린스핀 전 FRB 의장이 세계 경제를 위락파락했던 수단도 사실은 시그널이었다.

시그널의 발신지는 여러 곳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시그널은 상당한 의미와 영향력이 있다. 향후의 정책 방향과 목표, 수단을 모두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나 30일 ‘극동지역에 전용 부두를 만들기로 했다’고 한 발언은 남북 경협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시그널임에 분명하다.

우선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중요 현안에 보내는 부정적인 시그널은 해당 기업을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준다.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 현재 1단계 개성공단 사업의 최대 현안이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타지에서 공급될 인력이 거주할 숙소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한 남과 북, 러시아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 나진항을 개발하여 남-북-러를 잇는 나진-함산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재의 성격이 분명한 러시아 극동항 신설 발표를 시장참여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진-함산 프로젝트는 단순한 구상이나 계획 단계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북-러간에 합영회사도 설립했고, 10월초에는 실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정도로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다.

부정적 시그널이 남북관계 경색 부채질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도 경제 못지않게 시그널에 민감하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어떤

시그널을 읽었을까?

경제 재건을 강조하지만 사실 북한 내부에는 이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결국 외부에서 들여와야 한다. 북한이 경제 재건을 위한 축으로 특구 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들은 이러한 북한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복원에도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축소 발언 직후 곧바로 북한이 격한 어조로 비난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숙소나 나진항 개발은 북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물론 북한도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개성 특구와 나진-선봉 특구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은 숙소에 거주할 인력으로 생산 활동을 하려는 우리 기업을 위한 것이며, 물류비 절감을 원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어야 할 일이지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긍정적 시그널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개원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말과는 달리 바로 이러한 부정적 시그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행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행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숙소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고, 뜬금없는 러시아 극동 전용 부두 건설이 아닌 나진-함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10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남북 공동 SW전시회에 거는 기대 ----- 2

이주의 주요 기사

“부시, 北 테러지원국 명단서 삭제해야” <NYT> ----- 3

베네룩스 기업들, 방북..대북 투자 추진 ----- 4

118조원 초대형 자원외교...가스관 통과 ‘北변수’ 관건 ----- 5

“아차, 북한이 화났겠다” 정부 뒤늦은 수습 눈총 ----- 6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러경협 어려워” ----- 7

“개성공단 기업 애로 1위, 남북관계 불안감” ----- 8

김정일 대외 행보 공개..중대 결단 내렸나 ----- 9

“미국인들, ‘對北위협감’ 크게 감소”<퓨리서치> ----- 9

In North Korea, a port with no joy ----- 10

北朝鮮とロシアつなぐ鉄道…北朝鮮の思惑は ----- 11

추천논문 /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사회적 비용 -----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남북청소년문화원 창립기념 심포지움

▶주제 : 남북 청소년 그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강사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일시 : 2008년 10월 7일(화) 16:00~18:00

▶장소 : 함춘회관 3층 가전홀

●제26회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

▶주제 :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일시 : 2008년 10월 8일(수) 07:15

▶장소 : 퍼시픽호텔 3층 장미홀

●백범기념관, 백범학술원 학술회의

▶주제 : 백범 김구 선생의 한국 후 정책과 활동

▶일시 : 2008년 10월 9(목) 10:00

▶장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이 주의 칼럼 - 전자신문

남북 공동 SW전시회에 거는 기대

최성(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지난 8월 말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수도인 옌지시 국제전시장에서 제2회 한중IT포럼이 개최됐다. 전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동포 기업의 다양한 제품전시와 아울러 한중협력방안에 대한 포럼이 진행됐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북측이 중국 옌벤에서 창업한 옌벤우광소프트웨어(SW)개발이 출품한 화자식별엔진과 한일·일한 기계번역 등 두 가지 제품이 소개됐다. 이 제품의 설명은 개발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으로 소개했다. 이들이 영업을 위해 전시장에 나왔다면 데모도 보여주고 소개 팸플릿도 돌려야 했다. 그런데 간단한 시스템 설명만으로 응용SW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자 했다. 북측은 SW 마케팅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북한은 국가에서 SW산업에 주력하기 위해 1990년부터 개최하는 ‘전국프로그램경연대회’에 매년 4000여종의 SW가 출품된다고 한다. 1998년부터는 음성인식 프로그램 경연 및 학술발표회가 있다고 한다. 또 매년 10월 초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 ‘FostCup 컴퓨터챔피언’에서 1~3등 상을 획득하는 것이 북한 SW프로그래머들이다. 최근 내가 중국동포로부터 북한이 개발한 SW 리스트와 문서화 일부를 넘겨받은 결과, 1000여종의 SW 제품과 문서화에서 개발자 나름대로 표준화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은 SW인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또 IT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SW 개발

아웃소싱지역과 IT서비스 해외 진출 교두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가능한 중국 옌벤 조선족과 러시아CIS 고려인지역, 북한 등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 인재들을 중국 옌벤으로 불러내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선진국이 그랬듯이 한국이 SW를 설계하고, 북한과 공동 개발하면 된다. 그리고 유라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조선족과 고려인이 마케팅을 하면 된다. 이들은 이중언어가 되므로 해외 마케팅이 가능하다.

(사)통일IT포럼은 올해 12월 초순께 평양에서 남북공동 SW전시회를 개최하려 한다. 여기에 출품할 수 있는 품목은 응용 SW분야 중 이념과 관계없는 공개SW, 게임, 워터마킹, 통신, 테스트, e러닝, 임베디드, ERP 등이 가능하다. 또 회의에서는 IT전문가들이 교류협력 상담을 개최해 아웃소싱 개발협회의 해결점을 찾을 것이다.

이번 남북공동 SW전시회에서 북측이 출품한 SW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자. 한국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SW인 러시아어 번역시스템 등은 북측에서만 개발된 제품이다. 구매는 개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북측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한민족 단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남북 공동 SW전시회에 자못 기대가 크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929016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 산업부문별 상품전 개최 계획

-- 9월 29일 연합뉴스

북한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개최하는 국제상품전람회 이외에도 산업 부문별 전람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에서 열리는 상품전람회를 주최하는 국제전람회 김천체 과장은 29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봄철과 가을철의 종합전람회를 바탕으로 하면서 앞으로 부문별 상품전람회도 개최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25일 끝난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해 북한의 4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덴마크의 피복수출 전문회사인 인스파이어드사의 미셸 그로드 안데르센 부장은 “조선(북)에서 생산되는 피복 제품의 질적 수준에 감탄하고 있으며 조선의 기업들은 매력있는 사업대상”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북한과 유럽 기업간 교량역할을 하는 유럽기업협회 회장인 나이젤 카워 대동신용은행 총재는 “제1차 가을철전람회에 참가한 유럽기업이 10개도 안됐지만 이번 전람회에는 23개 기업이 참가했다”며 “현 단계에서 조선기업과 무역거래를 하는 유럽기업의 성공적인 결과가 소문으로 점차적으로 퍼지고 있고 조선기업과 계약을 맺게 되는 유럽기업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열린 가을철국제전람회에는 40여개의 북한 회사와 중국, 러시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쿠바, 폴란드, 대만 등 15개국에서 111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문무홍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내정

-- 9월 29일 한국일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영삼 정부 시절 통일원 통일정책실장을 지낸 문무홍씨가 내정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씨는 신언상 전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직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그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정식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함께 개성공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다. 신 전 위원장은 정권 교체에 따른 공공기관장 전면 교체 원칙에 따라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8개월 만에 물러났다.

올해 61세인 문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그 뒤 통일정책실장과 남북회담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부시, 北 테러지원국 명단서 삭제해야” <NYT>

-- 9월 30일 연합뉴스

북미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경계심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날 ‘어려움 겪고 있는 대북 협상’ 제하의 사설을 통해 “만일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명단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조속히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라고 제안했다.

신문은 특히 “미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검증 계획을 먼저 수용해야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검증 계획은 패전국만이 받아들일 법한 것”이라며 미국 요구의 무리함을 지적했다.

검증 계획이라는 것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든 없든, 북한의 모든 장소와 자료, 핵담당 관리 또는 물질 샘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 정부의 요구는 “북한을 정탐하기 위한 면허증을 달라는 것”이라는 핵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과거 속임수를 쓰고 아직도 자신들의 핵 활동에 대한 주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요구는 어떤 합리적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北, 내일부터 인구센서스 실시

-- 9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후원 아래 14년만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북한은 15일까지 전역에서 현장조사 요원 3만5천200명과 지도요원 7천500명을 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 나이, 성별, 결혼여부, 가족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교육수준, 국가내 이동, 장애 유무, 출생률,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과 상하수도 유무 등 총 53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UNFPA 요원 12명도 이 조사에 참여, 북한 전역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60개군을 직접 방문, 질의와 조사표 작성 과정을 지켜보고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며 일부 응답자에 대해선 직접 재조사해 북한 요원의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도 비교해본다.

북한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UNFPA의 베르나르 코큐랭 중국사무소장은 3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이번 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결

과가 국제사회에 공개되고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한반도 안보 악화”-삼성研

-- 9월 30일 머니투데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가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안보를 나타내는 지수는 1년반만에 기준점(50)이하로 떨어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2008년 3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 조사결과’를 통해 3분기 종합 현재지수가 전분기(51.23)보다 4.85포인트 하락한 46.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합지수가 기준점인 50이하로 떨어진 적은 2007년 1분기(49.15)이후 처음이다. 한반도안보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전, 그 이하는 악화를 의미한다.

한반도 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수화한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50이하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한일 관계가 67.99에서 28.82로 급락했고 남북 관계 역시 30.36에서 28.47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세부 항목에서도 일본 리더층의 대한민국 인식은 70.12에서 35.07로, 일본 언론의 대한민국 인식은 67.19에서 44.44로 하락했다.

“연해주는 곡물재배 최적지 철도 등 SOC도 괜찮은 편”

-- 9월 30일 부산일보

“러시아 연해주에 남한의 농업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기반시설이 어우러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해주 전문가’로 통하는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63) 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최근 한국에서 ‘연해주 식량기지’란 말들이 회자되면서 부쩍 바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연해주는 남·북한을 관통하는 철도를 통한 수송이 가능하고, 기후적으로 벼농사와 콩, 밀, 감자 등의 곡물을 재배하는 데 최적지여서 농업개발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해주에 농업투자 의지가 강한 경남도를 비롯,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으며 방송 출연과 각종 언론의 인터뷰도 잦다.

이 원장은 지난 1988년 처음 연해주를 찾은 이후 지금까지 130회가 넘게 방문했다. 그의 아들은 10년째 연해주에서 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연해주 프로젝트에는 이 원장의 손때가 묻지 않은 일이 없단다. 그는 이미 김대중 정권 때 북한 식량원조를 위해 연해주에서 생산된 쌀을 28차례나 철도를 이용해 북한에 보낸 경험도 있다.

이 원장은 “누구보다 연해주를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농업문제와 관련, 연해주에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연해주 진출은 앞으로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새로운 해외농업의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北김책공대 80여개학과 30여개로 통폐합”<조선신보>

-- 9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의 이공계열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종전의 80여개 학과를 30여개로 통폐합했으며 정보·나노교육 등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30일 전했다.

신문은 박길호(67) 김책공대 교무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 “학생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기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학과를 대폭 통폐합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내용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 분야의 교수·박사들이 동원돼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보교육과 나노교육, 컴퓨터응용교육 등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으며 그에 필요한 새로운 과목들을 내놨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에 “지방의 공업대학들은 물론 가정까지 원격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센터가 꾸려져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원격강의에는 실력있는 교원들이 출연하고 있으며 이곳 대학에서 개발한 다매체 교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1월 완공된 전자도서관은 연건평 1만6천여㎡ 규모로, 컴퓨터로 도서목록을 검색하고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평양 중구역 교구동 영광거리에 있는 이 대학은 개교 당시 평양공업대학으로 불렸으나 고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김책이 사망한 직후인 1951년 김책공업대학으로 개칭됐고 198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베네룩스 기업들 방북..대북 투자 추진

-- 9월 30일 연합뉴스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의 기업들이 30일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대북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3국 기업인과 중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4박5일간 북한의 정보기술(IT) 연구를 주도하는 ‘조선컴퓨터센터(KCC)’와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등을 둘러보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다.

‘베네룩스 3국 상공회의소’는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29일 베이징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북한의 산업 발전상을 비롯해 투자처로서의 장·단점 등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방북단을 이끄는 국제정보기술자문회사 GPI 컨설턴트의 폴 차아 대표는 설명회에서 “북한의 IT 분야 종사자들은 기술 수준이 높고 애니메이션, 기업행정 응용프로그램, 웹사이트 제작 등으로 분야별로도 전문화돼 있다”면서 “북한은 유럽 기업들의 역외시장 및 아웃소싱 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호주국립대학(ANU)의 리오니드 페트로프 교수도 ‘북한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투자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투자처로서의 북한의 장·단점에 대해 강조했다.

유럽은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해 오면서 북한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도 북한과 수교를 맺고 독일, 영국, 스웨덴, 체코, 폴란드 등이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무역을 제재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자원 확보와 기간산업 선점, 시장 확대 가능성, 저렴한 인건비 활용 등의 이유로 대북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118조원 초대형 자원외교...가스관 통과 ‘北변수’ 관건
-- 9월 30일 동아일보

한국과 러시아가 29일 합의한 가스 협력사업은 도입 물량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국내 가스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도 1020억 달러(약 1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의 최대 자원외교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양국이 추진하기로 한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도입 방안은 북한을 경유하는 형태여서 ‘북한 변수’에 따라 사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15년부터 30년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통해 들여올 가스는 연간 750만 t 규모다. 이는 2015년 국내 총예상소비량(3350만 t)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가스공사가 가스 수출국과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물량이 계약 한 건에 연평균 300만 t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도입 물량은 ‘초대형’인 셈이다.

특히 3000km 이내의 근거리에서 수입할 때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도입 단가가 저렴한 PNG여서 그동안 LNG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수입 방식을 이원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 한국의 가스배관이 세계 최대의 가스 수출국인 러

시아의 통합가스배관망(UGSS)과 연결돼 해외 에너지망과 연계된 최초의 사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한-러 철도연결 논의 위해 北 김정일위원장 만날 용의”
-- 9월 30일 문화일보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간 연결은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 주요 언론사 편집인들과의 만남에서 철도연결프로젝트에 대해 “북한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행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러 정상회담(29일)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면 전용부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장기임대방식이라도 원자재 수송 등을 위해 전용 항만 부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전용부두 문제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국토해양부 장관과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즉각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 대공전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러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10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 격상 ▲외교당국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 개최 및 군 인사군사기술 교류 등 국방분야 교류협력 ▲러시아와 한국 에너지공동프로젝트 추진(러시아 천연가스 한국 도입 및 북한 경유 가스배관 설치 공동연구) 등을 담고 있다.

北 “9·9절 계기 80여개 시설 건설”
-- 9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에서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공장·기업소와 문화시설 80여 개가 건설되고 60여개가 개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30일 전했다.

방송은 ‘선군으로 더욱 굳건해진 나라의 경제력’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성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 영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줌으로써” 이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정초부터 사나운 눈보라와 삼복의 무더위도 가리지 않고 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도하면서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 일으켰

다”고 방송은 선전했다.

방송은 전력부문의 대표적 건설물로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현지지도'했던 예성강 청년1호발전소를 비롯해 성천 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1단계 공사를, 중공업부문에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 및 금성 트랙터(트랙터)공장 함유연 생산체계를 꼽았다.

또 광업부문에서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광석운반계통 능력 확장 공사와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의 미광처리용 침전지 공사,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룡반탄광 2개 건설을 들었다.

방송은 주민생활과 관련해선 평양방직공장 현대화 공사와 평북돼지공장 및 강계돼지공장 현대화, 웅진대흥수산사업소 김 가공장 및 인공배양장 조업, 신계고구마가공공장 조업, 사리원·곡산·개성의 유기질복합비료공장 건설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차, 북한이 화났겠다” 정부 뒤늦은 수습 눈총

-- 9월 30일 연합뉴스

한러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로 평가되는 ‘한-러간 천연가스 육로 공급’ 합의가 북한 측의 사전 동의 없이 대대적으로 발표되어 향후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수습에 나섰다. 이미 ‘얼질러진 물’이 된 격이어서 치밀하지 못한 일처리를 보여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육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여온다는 계획의 핵심은 북한이 천연가스 수송용 파이프를 러시아와 한국 사이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땅을 빌려주느냐는 것.

러시아와 한국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별도의 실무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항이어서 북한 측이 외교적 결례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러 두 나라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통해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미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간 배관통과요율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연 1억불 이상의 배관통과료 수입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지만 연간 1억불 이상의 돈을 북한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언짢을 수 있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

우리 정부는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문제는 러시아가 책임지고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훈 지경부 차관은 “북한 경유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안한 것은 러시아측이고, 러시아측이 책임지고 건설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30일 수행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듯 “북한과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북한을 통과한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이나 개성보다 실제로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북한이 기꺼이 육로를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의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쓰면 좋지 않겠나 싶다”면서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이미 하루 전날 ‘북한을 거쳐 천연가스를 들여온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미 얼질러진 물이 됐다는 것.

김정일 은둔속 당·정 간부들 량강도 참관

-- 10월 1일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공개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과 내각 간부들이 대거 지난달 30일 북한의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인 량강도 대흥단군을 방문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일 “성.중앙기관, 량강도내 일꾼들이 9월30일 대흥단군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며 “창평농장 제2작업반과 홍암농장 제4작업반 포전들,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문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발표 10주년을 맞아 이뤄진 참관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서기장, 광범기 내각 부총리, 박남기 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현지지도나 시찰을 하지 않고 당과 내각의 고위간부들을 대신 현장에 내려보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도 대흥단군 국영5호농장 창립 50주년을 맞아 김정일 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노동당과 내각 간부들이 대거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고, 2005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 성.중앙기관의 행정 간부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시찰한 시설을 중심으로 참관 활동을 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성격의 행사일 수도 있다.

미나카소네 외상, 북한 추가 제재 불가피

-- 10월 1일 뉴시스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은 지난 30일 “일본과 북한의 분쟁에 대한 협상의 합의에 실패함

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일본 NHK가 전했다.

나카소네 외상은 이날 내각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언급하고 “북한과의 합의안이 완료되는 시점인 10월13일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이 금지되고 북한 선박의 정박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나카소네 외상은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다시 복구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의 불가피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또 “일본이 지난 8월 북한과 실무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재조사 이행에는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李정부 차별화기싸움 속 10.4선언 사문화”

-- 10월 1일 뉴시스

이명박 정부가 출범후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 및 대북 기싸움에 나섬에 따라 10.4선언이 사문화됐으며,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의 결함을 막고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위치를 밝히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정교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일 민주당 '민주정책 연구원'이 10.4정상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토론회 사전 발제문에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공존공영’, ‘화해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듯이, 2007 남북정상회담의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는 10.4 선언에 대해 “2000년 정상회담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합의 내용이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구체적, 실질적, 실행력, 구속력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러경협 어려워”

-- 10월 2일 서울신문

“이번 한-러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격상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극동시베리아 개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국책연구소인 동방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과장은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로 2000~2002년 주북 러시아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한국 외대와 김일성종합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한-러 정상간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단계로 평가할 만 하다.”며 “그러나 천연가스 도입과 극동시베리아 공동개발,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추진 등은 북한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바뀐 뒤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한-러간 추진할 경험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 등이 함께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는 남북보다 북-미간 문제로 봐야 한다.”며 “북핵 해결이 대북정책의 조건이라면 남북 관계 발전은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한-러가 합의한 경험도 이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北 발명·신기술 전람회 개막

-- 10월 2일 연합뉴스

제10차 전국 발명 및 신기술 전람회가 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람회에는 사회단체, 성(省), 중앙기관과 각 도(道)에서 선발된 1천500여 건의 발명과 신기술 자료들이 실물과 모형, 도해, 다매체(멀티미디어) 편집물 등으로 출품됐으며, 전람회 기간에 발표회, 기술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기술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과학기술 성과들을 생산과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개막식에는 로두철 내각부총리를 비롯해 리광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진 교육상, 관계부문 과학자와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변영립 국가과학원장은 연설에서 “최근 연간 이룩된 발명성과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경수로사업 ‘국채 돌려막기’로 이자만 6천억”

-- 10월 3일 연합뉴스

통일부가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이범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수로 사업 관련 국채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종료된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KEDO 차관은 1조3천743억원이지만, 지난 8월 현재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에 총 5천9천71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KEDO 차관을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온 정부가

만기 도래 국채를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막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이자 상환액은 전체 경수로 차관액의 44%에 해당하며, 대북 경수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부담하는 실제 채무는 1조9천714억원에 달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국채 돌려막기’로 인해 발행된 국채의 총 규모는 4조3천37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원금상환 만기일자를 살펴보면 1999~2004년 발행된 국채는 3년, 2005년 발행 국채는 4년, 2006~2008년 국채는 7년으로, 정부가 매해 상환일자를 늦춤으로써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기업 애로 1위, 남북관계 불안감”

-- 10월 3일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남북관계 악화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34.5%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불안감’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3통(통행.통관.통신)문제의 어려움’이 28.9%,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인력조달의 어려움’이 각각 17.1% 순이었다.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으로는 65.8%가 ‘정부와 여당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목했고 ‘금강산 피격사건 및 핵불능화 중단’이 19.7%, ‘북미관계의 악화 등 국제정세가 6.6%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경색의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 대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5%로 가장 높았고,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가 32.9%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북강경책의 지속을 통한 북한정권의 사과 선행’이라고 답한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0.3%, ‘그저 그렇다’가 35.5%, ‘만족한다’가 3.9%로 조사돼 금융지원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부분은 어려운 경제난 타계책으로 개성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이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10.4 선언 이행’에 집착하는 이유는

-- 10월 4일 노컷뉴스

10.4 선언의 이행 문제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북한은 줄곧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6.15와 10.4 선언 이행에 대한 입장부터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들 두 선언과는 달리, 북핵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비핵개방 3000을 공식화하자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남한 당국자 추방 등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이 이들 두 선언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우선 최고 실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합의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선언들이 북한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지 100주년 되는 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10.4선언의 남북 경협을 실현함으로써 경제난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대북 발언이나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분야를 10.4 선언의 이행과 결부시키고 있다.

韓·美·日 8개국, IAEA 대북 결의안 마련

-- 10월 4일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북한에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를 촉구하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IAEA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2차 연례총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IAEA의 대북 결의는 북한이 최근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재처리시설 재가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불능화 작업의 조기 재개,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불능화 작업 및 동반 조치의 완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는 또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IAEA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검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국제기구보다는 미국, 또는 6자회담 관련 핵보유국들의 검증을 선호하고 있다.

IAEA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 시설을 일주일 내에 재가동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IAEA 검증팀의 재처리시설 접근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독일의 dpa 통신은 IAEA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아직은 플루토늄 작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북한 방문을 마친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전날 서울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대외 행보 공개...중대 결단 내렸다

-- 10월 5일 연합뉴스

“건강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지만 모

중의 중대 결단을 내린 데 따른 행보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 소식통은 5일 북한 매체들이 전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을 보도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가 50여일 만에 공개된 데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일단 다수의 관측통들은 보도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측이 대내적으로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는 점과 기존 북한 매체들의 보도행태로 미뤄 김 위원장이 경기를 참관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통상 김 위원장의 동정과 관련, 1~3일 경과한 뒤 보도하는 관례로 미뤄 김 위원장은 이달 1~3일 사이 경기를 참관했으며 4일 조선중앙통신을 시작으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는 게 대체적인 추론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회복중’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재개가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특히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의 전파에 따른 주민 동요 가능성이 제기되고 남한에서 급변사태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 5029’ 추진 건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견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런 차원을 넘어 대외 관계와 관련, 모종의 전략적 결단을 내린 데 따른 행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북핵문제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10.1~3)을 계기로 북·미가 부시 행정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예상돼온 담판을 벌인 직후 김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김 위원장이 행보가 공개되지 않은 23일간 대남 정책과 관련한 장고를 거듭했고 결국 정상회담 개최라는 결단을 내린 뒤 문화행사 참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행보가 공개된 날이 힐 차관보의 방북 활동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은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미국인들, ‘對北위협감’ 크게 감소”<퓨리서치>

-- 10월 5일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최대위협이 된다는 미국인들의 생각이 울타리 크게 감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달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 2천982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 이란이 21%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고 뉴스위크 최신포가 보도했다.

작년의 경우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 꼴인 25%가 이란이 미국의 최대안보위협국이라는 견해를 밝혔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6%가 미국의 최대안보위협국으로 중국을 꼽아 중국은 3년 연속 2위 자리에 올라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안보위협우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미국안보의 최대 위협국이라는 답변은 6%(5위)에 그쳐 작년 17%(3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러시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서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국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2%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무려 14%가 꼽아 3위로 급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위협감이 줄어들고 러시아가 다시 위협대상으로 급부상한 것은 조사 당시까지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대북 핵협상에 진전을 이룬 반면에 그루지야사태 등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조짐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화차 2000대 미반환 북한과 철도협정 파기

-- 10월 5일 뉴시스

중국은 대북 물자수송에 동원된 열차 화차 약 2000대를 북한이 반환하지 않자 양측 간 철도협정의 파기를 통고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베이징의 북한 경제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문제의 화차들을 북한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반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식량 등을 운반할 때 화차는 베이징-평양 간 국제열차에 연결돼 국경을 넘은 뒤 신의주역에서 분리돼 다시 북한 열차와 연결한다.

지난 80년 대계부터 중국에서 보낸 화차를 북한이 차용하기 시작해 90년대 중반 이후는 거의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런 화차가 현재 2000량 정도에 이른다.

1954년 체결된 중-북한 철도협정은 미반환 화차가 약 800대를 초과할 경우 중국 측이 제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여러 차례 철도 대표단을 파견, 화차 반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명확히 답변하지 않자 올 여름 대북 화물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철도협정도 파기한다고 통보했다.

‘개성공단’ 하버드대 MBA 과목 채택

-- 10월 5일 서울경제

남북경협을 상징인 개성공단이 세계 최고의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경영학 석사) 과정으로 꼽히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BS · Harvard Business School)의 교육 과목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개성공단이 서구의 MBA 과정에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HBS의 과목 채택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축으로 하는 남북경협을 미국 · 유럽 등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HBS에서는 ‘북한에 스며드는 자본주의:개성공단(Penetrating Capitalism into North Korea:Kaesong Industrial Complex · 가제)’이라는 과목명으로 개성공단 케이스를 가르칠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관련 케이스는 BGIE(Business Government Industrial Economy) 강좌에서 채택됐다.

HBS에서 개성공단 케이스를 강의할 에릭 위커 교수와 단테 로치니 교수는 지난주에 방한, 지경부의 남북경협 관련 부서와 개성공단 진출 기업 등을 만나 자료수집 · 면담 등을 마친 상태다. 특히 관련 교재 작성에는 지경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한구 FTA 팀장도 함께 참여해 2명의 HBS 교수와 함께 3인 공저로 발간된다.

개성공단이 HBS 강좌에 채택된 데는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 무엇보다도 ▲한국과 북한의 합작사업이라는 점 ▲정치 · 경제가 복잡돼 있다는 점 ▲기업 · 정부 요소가 결합돼 있는 점 ▲글로벌 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직접투자 관심의 증대 ▲FTA의 핵심 등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北, 신임 철도상에 전길수 씨

-- 10월 5일 연합뉴스



4일 북한 라선시 두만강지구 조로천선각에서 열린 북한 라진강과 러시아 하산역을 잇는 철도구간 현대화 공사 및 라진항 개건착공식 후 관계자들이 철도부설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북한 내각의 김용삼 철도상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후임에 이 부처 참모장인 전길수 씨가 기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을 전하는 가운데 이 행사에 참석한 전 씨를 철도상이라고 언급,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 철도상은 수송지휘국 1부국장, 수송지휘국장, 참모장 등을 지냈다.

한편 전임자인 김용삼 씨는 1998년 9월부터 최근까지 10년 간 철도상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해 5월 남북 철도

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같은 해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남측 언론에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와 라진-하산 철도구간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철도협조기구 제36차 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In North Korea, a port with no joy
북한의 항구에는 활력이 없다

-- 10월 4일 Asia Times

출처:<http://www.atimes.com/atimes/Korea/JJ04Dg01.html>

NAMPO, North Korea - A single small freighter waited in the West(or Yellow) Sea outside the locks to the entrance of the Daedong River behind the West Sea barrage, an eight-kilometer-long dam built in the 1980s to ease passage in and out of this critical port 60 kilometers southwest of the capital Pyongyang.

“It’s carrying rice,” said a guide, gazing from the hill overlooking the locks. “We import rice and export coal.”

Another guide, heaping praise on the late Great Leader Kim Il-sung for pushing the project as a “unique measure to overcome the tides”, said 10 ships a day pass through the locks on the way to the docks eight kilometers upstream.

The barrage remains as North Korea’s most impressive accomplishment, not counting the cavernous stadiums and theaters and museums and monuments in the capital, but the small scale of trade provides an insight into the North’s pervasive economic problems.

These are compounded by the crisi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has attracted heavy economic and other sanctions. United States envoy Christopher Hill on Friday ended a three-day visit to North Korea during which he was to attempt to persuade Pyongyang not to restart its program. Talks involving six countries over North Korea’s program have been stalled since mid-August over a dispute on how to monitor its extent. Hill is due to soon report his progress to the other countries involved - Japan, China, South Korea and Russia.

.....

평양 인근의 항만 남포에는 북한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서해갑문이 있으나 북핵으로 인한 각종 국제 제재, 기근, 기능이 상실된 주체 경제 등으로 인해 거의 활력을 잃은 상태다.

Pyongyang construction boom mystifies
이해하기 힘든 평양의 건축 붐

-- 10월 3일 Boston Globe

출처:http://www.boston.com/news/world/asia/articles/2008/10/03/pyongyang_construction_boom_mystifies/

PYONGYANG, North Korea - It has been so long since the sound has been heard in the North Korean capital that at first it seems an illusion, a buzzing in the ear perhaps. But no, that really is a power saw, and that pounding really is a hammer at work at a construction site.

By the dizzying standards of Asia's exploding mega-cities, the construction underway here is nothing you could call a real estate boom. But it is a remarkable - and somewhat mysterious - development in a city that looks as though it were frozen in time, with its Stalinist slabs of concrete from the 1950s and '60s.

Except for the monuments glorifying leader Kim Jong Il and his father, Kim Il Sung, the founder of North Korea, hardly anything new has gone up in decades. By night, the city is so quiet you can hear a baby crying from far across the Taedong River, which cuts through the center of town.

Yet these days, high-rise apartments in shades of pink are taking shape near the Pueblo, the American spy ship captured in 1968 and still anchored in the river. A tangle of construction cranes juts into the skyline near Pothong Gate, a re-creation of the old city wall. About 100,000 units are set to be built over the next four years.

A modernistic, silver-sided box of a conference center is complete. Theaters and hotels are being renovated. Streets have been repaved and buildings repainted.

.....

아시아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부동산 붐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평양의 최근의 건설 활성화는 이해하기 힘들다. 평양에는 현재 10만 채의 아파트, 컨퍼런스, 극장, 호텔, 도로들이 건설이 완료되거나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를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북한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의아하게 보인다. 일반적으로 건설에 사용된 자금은 남한, 중국, 중동 등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北朝鮮とロシアつなぐ鉄道…北朝鮮の思惑は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북한의 의도는

-- 10월 6일 요미우리신문

北朝鮮・ラジン港とロシア極東の町・ハサン。約50キロ離れた2つの町の間には鉄道が敷かれているが、線路の幅が違うため、改修工事が行われることになった。4日に北朝鮮・豆満江で行われた着工式を取材した。

着工式に出席した北朝鮮のチョン・ギルス鉄道相は「アジアとヨーロッパの間の輸送を円滑にする素晴らしい鉄道として発展するでしょう」とあいさつした。

ラジン港の整備も含めた改修工事の費用は約440億円で、全額ロシアが負担する。シベリア鉄道と朝鮮半島を

つなぐ物流ルートを確認したいロシアの思惑と、外資によるインフラ整備を図りたい北朝鮮の思惑が一致した形だ。

10월 4일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의 핫산간 약 50km 구간을 잇는 철로 개보수공사의 착공식이 북한 두만강에서 진행되었다.

착공식에서 북한의 전길수 철도상은 「아시아와 유럽을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철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진항의 정비를 포함한 개보수공사 비용은 약 440억엔으로, 전액 러시아가 부담한다. 시베리아 철도와 조선반도를 잇는 철도루트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외국 자본으로 인프라 정비를 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일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北朝鮮>核計画申告2施設除外 92年以前の活動隠す

핵계획신고 2개 시설 제외, 92년 이전 활동도 은폐

-- 10월 6일 마이니치신문

北朝鮮は6月に提出した核計画申告で、93年に国際原子力機関(IAEA)の特別査察要求を拒否した寧辺(ニョンビョン)の廃棄物貯蔵施設2カ所を含めず、92年以前の核活動を隠してプルトニウム抽出量を低く算出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れを解明するため米国は検証の履行計画草案で「未申告施設の立ち入り」と「サンプル採取」などを強く求めたが、北朝鮮は拒否し、攻防が続いている。今月初めの訪朝でヒル米國務次官補は未申告施設を検証対象とする原則は維持しながらも、実施時期などで柔軟性を示したが、北朝鮮は依然として難色を示している模様だ。

ソウルの外交消息筋が明らかにした。2カ所は、(1)固体廃棄物貯蔵所(76年建設) (2)再処理施設とパイプラインがつながっている液体廃棄物貯蔵庫(90年建設)---と推察される施設。

북한은 6월 제출한 핵 신고에서 93년 국제원자력기관(IAEA)의 특별사찰요구를 거부한 영변 폐기물 저장시설 2개소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92년 이전의 핵 활동을 숨긴 채 플라토늄 추출량도 적게 산출한 것이 밝혀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은 검증이행 계획안에 '미신고시설의 출입'과 '샘플채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북한이 거부하여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 초 방북한 힐 차관보는 미신고시설을 검증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시시기 등에서 유연성을 보였지만 북한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2개소는 (1)고체폐기물 저장소(76년 건설) (2)재처리시설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는 액체폐기물 저장고(90년 건설)로 추정되는 시설.

추천 논문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사회적 비용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20년이 경과한 남북경협을 되돌아보면서 필자는 오늘 우리는 중대 기로에 봉착해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 경색 관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가 국익차원에서 손실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 경색은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야기한다. 우선, 남북교역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 남북교역 규모는 20007년 18억 달러로 1989년에 비해 90배 이상 성장했으며, 성격도 지원 중심에서 상업적 베이스로 ‘건실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교역이 정체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를 감소시킨다. 1993년 0.3%에 불과했던 대남 의존도는 위탁가공교역에 힘입어 2006년 31.0%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남북의 경색관계는 이 같은 교역의 비중을 약화시켜 북한 경제의 대남의존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북한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진출 및 진출을 희망하는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최근 남북의 경색관계로 개성공단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북측으로부터 인력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기 진출 기업은 물론, 1단계 분양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제 차원에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시킬 것이다. 남북경협의 경제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도 지연시킨다. 기 합의된 3통 문제, 북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 숙소 문제 등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경제성 및 수

익성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 대북 투자자산 확보의 불안정성도 증대시켜 북에 투자한 남한 기업들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내몰고 있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 경색은 경제적 기회 손실을 야기한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의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 주요 경협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총 112억 달러에서 159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은 269억 달러~408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도 113억 달러~172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 경색은 이러한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 외도 남북관계의 경색은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도 크다. 남북간 긴장고조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며,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통일비용의 부담을 가중하며, 평화 이미지 훼손, 관광수요 급감,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인 대남 이미지 확산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처럼 남북간 교류협력의 장기간 침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손실로 이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수단임과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olof.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박길연 유엔대사 유엔총회 외무장관 회의에서 연설’ 보도

○ 10.1. 중앙방송은 “유엔총회 제 63차 회의 기간 유엔본부에서 9월 26일에 진행된 77개 집단 외무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이 연설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유엔총회 제63차 회의에 상정된 경제사회 분야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77개 집단의 공동입장을 정립하게 되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은 “박길연 대사는 ‘77개 집단이 남남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확고한 정책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정의와 평등,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수립하며 집단적 자력갱생에 기초한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